

땅끝 해남 겨울 전지훈련팀 열기 '후끈'

땅끝 해남이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한 선수들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LPGA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6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골프 선수 30여명이 지난달 1일부터 해남을 찾아 40일간 일정으로 겨울 훈련에 들어갔다.

골프 종목이 해남을 찾은 것은 올해 6년째로, 이정은6 선수가 매년 해남 훈련 이후 눈에 띄게 성적이 향상되면서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

2019~2020 동계시즌 동안 해남에는 골프를 시작으로 15종목, 290팀 3,90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5만명에 이른다.

종목도 다양해 축구 38팀 1,026명을 비롯해 육상 26개팀 172명, 레슬링 27개팀 256명, 펜싱 38팀 198명 등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배구, 근대5종,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검도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해남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데는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런 음식, 적극적인 시설확충 노력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동백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수영장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각



해남을 방문한 동계 전지훈련팀이 실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2019~2020 동계시즌 연인원 5만명 유치

골프·육상 등 다양... 차별화 마케팅 주효

중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고, 올해 현대식 8레인의 전천후 실내 육상 연습장도 완료했다.

특히 이 같은 시설들이 우슬 경기장을 중심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집약돼 선수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체력훈련과 경기까지 치를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훈련지로 꼽히고 있다.

선수 부상방지를 위한 지정병원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선수전용 세탁실, 문화공연 관람, 힐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레슬링팀 안한봉 감독은 "해

남을 찾은 전지훈련팀들이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전지훈련기간 동안 해남군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하계 전지훈련 기간에도 6종목 180팀 연인원 3,000명을 유치하는 등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대중 파크 골프장 등을 확충해 전지훈련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선도 최선”

새해설계

전동평 영암군수

전동평 영암군수는 5일 “지난해 개관한 한국트러스트가요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날 “희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군민과 향우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흔들림 없는 균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군수는 우선 지난해 10월 개관한 한국트러스트가요센터가 음악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신인가수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로트 아카데미 운영과 영암 아리랑 가요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영암을 대중가요의 요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영암을 대한민국 민속씨름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금까지 19회 장사 등극과 전국체전 2체급 금메달 획득으로 창단 3여 년 만에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고품질·고소득 생명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준공한 국립종자원 배정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종자 선별 보급, 채종포단의 대폭 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소득 증가를 도모할 방침이다.

친환경 클로렐라 농법으로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아시아 종묘원과 더불어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도 개발할 계획이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에도 힘을 쏟는다.

민선 7기 핵심사업인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부식비를 대폭 늘려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욕비·이미유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100호와 더불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전 군수의 구상이다.

경운대학교 기숙사와 강의동을 개소해 지역 산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에 힘입어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대불산단과 국제자동차 경주장이라는 영암군의 이점을 살려 자동차 튜닝산업 또한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서 도입 ‘농기계 종합보험’ 전남 전체 확대

도비 지원사업 채택... 농가 부담 10% 줄여

강진군이 전남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올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군 자체적으로 농가 자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난 2년간 2,016농가에게 총 2억2,300만원을 지원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해 보상한다.

성전면에서 거주하는 조모씨(54)의 경우 180만원으로 트랙터 종합보험에 가입

해 사고 후 보험금 8,97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가입 보험료는 국비 50%, 군비 20%, 농가에서 3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남도 사업으로 확대돼 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한다. 가입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B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등 12종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종사자다. 가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

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승욱 군수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정책을 전남 최초로 타 시군보다 앞장서 추진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항상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진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야간 농기계 운행시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등화장치 118개와 방향지시등 28개를 노후 농기계 및 반사지가 훼손된 농기계에 설치하는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서남부권 관광 중심도시 도약”

새해설계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는 5일 “새해에는 보배섬 진도군이 전남 서남부권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문화·예술 진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균형 목표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수산업 분야 지원, 군민 복지증진,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 지역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진도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진도 국제항 건설,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조도대교 건설), 해안 일주도로의 국도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 진도-영암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진도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특별 대책을 위해 진도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세대를 집단으로 유치하는 등 귀농·귀어·귀촌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주력한다.

이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LPG 배관망 사업 등 73건의 주요 개발사업 이외에 신규로 지역개발, 항만, 하천, 관광시설 등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더욱더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늘릴 방침이다.

농업 분야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자부담 경감 ▲물류비 지원 등에 나선다. /진도=박병호 기자



수산업 분야는 ▲전복 먹이 대체 품종 종자공급 ▲잡은 어업 활성화 ▲해상양식 단지 조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호텔리조트인 쉼비치 진도가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2,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관광지와 외식업소 등 관광업계가 상당한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관광·문화·예술 진흥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 군수는 “쉼비치 진도 개관으로 진도 관광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관내 연계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전시컨벤션(MICE) 산업 유치 활동과 민속주(홍주) 테마공원, 진도 루지 테마파크 등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복지를 위해 1,000원 버스제를 시행하고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2021년 진도 소방서 신설 노력,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진도=박병호 기자

도올 김용옥, 해남서 인재학당 인문학 강의

오늘부터 4박5일간... 도내 고교생 63명 참여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하는 ‘전남 인재학당’이 해남에서 열린다.

해남군은 6일부터 4박 5일간 도내 고교생 63명이 참여하는 전남 인재학당을 해남 가학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

전남 인재학당은 도올 김용옥 선생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의 석학들이 전남의 젊은 세대들을 만나는 자리다.

옛 선인들의 생애와 사상 등을 탐구

하고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류문명사, 한자, 공자의 생애와 사상 등 인문·철학교육이 주를 이룬다. 도내 역사문화 현장답사도 해 전남 바로 알기를 위한 시간도 갖는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인문철학 프로그램으로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

고 있다.

도올 선생은 해남현감을 지낸 증조부 김중현과 조부 김영학이 해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등 해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해은(증조부 김중현의 아호)기념사업회가 구성돼 도올의 귀향과 함께 호남정신을 가르칠 해은서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청소년들이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장기 발전 프로젝트 역량 모을 것”

정현인 진도 부군수 취임

진도군 신임 부군수에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이 취임했다.

정 부군수는 광양 출신으로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무안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장, 나주시 경제안전건설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으로 2003년 행정자치부장관에 이어 2012년 국무총리 우수 공무원 포상을 받았다.



정 부군수는 “진도 장기 발전 프로젝트 추진, 인구 늘리기, 지역개발사업, 농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며 “관광·문화·예술 진흥, 안전한 진도 건설, 따뜻하고 행복한 진도군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뢰받는 균형 소임 다할 것”

김희필 무안 부군수 취임

김희필 무안군 제24대 신임 부군수가 지난 2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부군수는 곡성 출신으로 조선대부속 고등학교,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 공보관실 홍보관리담당,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일자리정책본부 사회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군수는 신속한 균형 현황 파악을 위해 취임식을 생각하고 취임 당일부터



기관사회단체, 사업소, 읍면을 직접 돌며 소통에 나섰다. 김 부군수는 “전남 시군 중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무안군에 부군수로 취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안군이 가진 잠재력에 힘을 조금 더 보태 군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신뢰받는 균정을 펼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